

# 무안 농·수·축산 직렬공무원 턱없이 부족

## 농업직 전체공무원의 3.8%...고흥 절반 "전문성 강화 위해 충원·승진 이뤄져야"

무안군 농·수·축산업 직렬 공무원이 크게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4일 무안군에 따르면 농업직은 전체 공무원수 대비 3.8%인 30명으로 전남도 전체 5.7%에 못 미친다. 또 지도직은 20명으로 군 전체 공무원의 3.5%(전남도 전체 4.4%)에 불과하다. 무안군보다 공무원 수가 50여 명이 더 많은 고흥은 농업직이 61명으로

무안군보다 2.1배가 많다. 공무원이 무안보다 100여 명이 적은 진도보다도 수가 못 미치는 형편이다. 농업직 사무관 역시 도내 시·군중 많은 곳은 3~5명이고 대부분 2명 이상인데도 무안은 수십 년째 1명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무안 농업과 축산발전, 지도업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농업 관련 직원의 충원이 어느 때보다 절

실하다. 특히 양과 최대 주산지인 무안지역의 올해 양과재배 면적은 3703ha로 전국 재배면적 2만9577ha의 17.4%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전남 지역 전체 재배면적의 34%를 차지한다. 양돈 역시 17만6000마리로 전남지역에서 첫 손가락에 꼽히며, 전체 축산규모로는 나주에 이어 2번째이다. 지난해부터 전국에서 유일하게 친환경 브랜드로 개발한 특화단지 유휴지지는 4 농가에서 2만1000 마리를 사육하고 있으며, 앞으로 10여 농가·10 만마리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무안군 농업직 관계자는 "30년 이상 공직생활을 하고도 6급으로 정년

하는 사례가 많다"며 "관련 직렬 간의 형평에 맞는 직원 충원과 승진이 이뤄져야 한다. 눈치를 보지 않고 군민을 위해 일단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철주 무안군수는 농업직 공무원이 퇴직한 만큼의 관련 직렬 충원을 하지 않은 채 ▲친환경 우량한 우단지 조성 ▲축산과 독립 ▲친환경 농업 확대 ▲양과·마늘 육종연구원 유치 ▲농·수·축협 유통협약 유통구조 개선 ▲농·수산업 체류형 관광중심 사업 등 13가지 사업을 핵심 공약 사항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서부취재본부=김민준기자 jun@



해군 사진 공모전 금상 '명량해전' 해군본부 주관 사진 공모전에서 영예의 금상을 받은 정용석(65·해남군)씨의 '명량해전'. 전남도 주최로 매년 해남 우수영 관광지와 진도 녹진관광지 일대 울돌목에서 열리는 '명량대첩 축제'는 전남 대표 축제이다. /연합뉴스

## 목포 양동제일교회 경로대학 "기차여행 갑니다"



목포 양동제일교회 경로대학(학장 이혁영 씨월드고속웨리 회장) 학생 820여명이 추여의 기차여행을 만끽했다. 경로대학은 설립 20주년을 맞아 최근 열차 10량을 전세내 목포역에서 승차한 후 곡성 기차마을을 찾아 장미축제장 등을 둘러봤다. 이혁영 회장은 사비를 들여 매년

봄과 가을 2차례씩 지역 노인들을 대상으로 여행 프로그램을 진행, 호평을 받고 있다. 경로대학은 매주 토요일마다 종교에 관계없이 교양 강좌와 특별 수업반으로 나눠 '노년의 삶을 즐겁게, 사회와 함께 하는' 을 목표로 진행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으로 현재까지 28만6400명이 수강했다. /서부취재본부=이상선기자 sslee@

## 목포서 1040명 채용 취업박람회

### 오늘 실내체육관

도내 200여개 기업에서 1040여명을 신규 채용하는 취업 박람회가 목포에서 열린다. 전남도와 도 교육청·고용노동부·중소기업청·한국산업단지공단·목포상공회의소는 공동으로 5일 오전 10시부터 목포 실내체육관에서 '2012 전남도 일자리 취업 박람회'를 개최한다. 이날 취업박람회는 구직자간 인력수급의 불균형 문제를 단순히 해결하는 소극적 행사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기업과 접촉해 대개업을 비롯한 도내 유망 중소기업을 유치해 해당 기업의 구인 수요를 파악함으로써 취업 희망자들에게 풍성한 일

자리를 제공하는데 역점을 뒀다. 이날 행사는 200개 기업과 구직자 4000여명이 참여해 약 1040개의 일자리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박람회 참여기업 중 50곳이 행사장에 직접 참가해 채용 담당자와 구직자 간 일대일 면접을 실시하고, 150개 기업이 모집 공고문을 통해 구직자의 지원 서류를 접수해 기업으로 일괄 보내는 방식으로 간접 참여한다. 부대행사로 직업 훈련기관의 훈련과목 시연과 목포 고용센터의 고용보합에 관한 상담, 직업선호도 검사, 각종 직업훈련 학교의 유망 자격증 취득 지원에 대한 정보 등이 제공된다. /서부취재본부=이상선기자 sslee@

## 목포시 F1 성공개최 총력 지원 돌입

목포시가 'F1 코리아그랑프리 대회'의 성공개최를 위한 본격적인 붐조성에 나선다. 정종득 목포시장은 6일 확대 간부회의에서 "오는 10월 영암에서 펼쳐지는 세계인의 스포드축제인 '2012 F1 코리아그랑프리' 대회를 공직자 전 직원이 지혜를 모으고 온 시민이 땀땀 뭉쳐 성공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시는 각 분야별로 준비에 돌입했다. 우선 자치행정과는 5일 F1 경주장 미디어센터에서 행정의 최일선 조직인 23개동 500여명의 통장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한다. 또 시에서 지급하는 각종 수상자들의 시상품을 F1입장권으로 대체해 시민들의 동참을 자연스럽게 유도키로 했다. /서부취재본부=임영춘기자 lyc@

## 해남 송지·현산면 일대 1300ha 숲가꾸기 사업

F1대회 티켓판매 지원을 위해 별도의 홍보 전담팀을 구성하고, F1 티켓을 관내 및 인근 기업체, 출향향우 등을 대상으로 본격 세일즈 활동을 전개키로 했다. 2만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는 '포사모'(포플러원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에 목포시민 1000명의 회원 추가가입 운동을 전개해 F1 붐조성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7월부터 갖바위 터널~도청사거리 입구 1.2km 구간에 배너기를 설치하고, F1 호텔 75개소, F1 레스토랑 68개소, F1 바 19개소 등 F1대회 공식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한다. 또 시에서 지급하는 각종 수상자들의 시상품을 F1입장권으로 대체해 시민들의 동참을 자연스럽게 유도키로 했다. /서부취재본부=박희석기자 dia@

해남군이 산림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책 숲가꾸기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군은 산림이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 3월 부터 6월까지 송지면·현산면 일대 산림에 총 사업비 12억3306만원을 들여 '정책 숲가꾸기 사업' 1300ha를 추진하고 있다. 올해 정책숲가꾸기 사업은 송지면 송호리·통호리, 현산면 구사리 산립내 천연림과 과거 조림지에 대해 천연림 개량, 숲야생, 어린나무 가꾸기, 산물수집 등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숲가꾸기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산물을 수확해 팔감이나 톱밥생산 등으로 활용하며 1석 2조의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서부취재본부=박희석기자 dia@

# 전 북

## 익산 제3 일반산업단 외국인투자지역 관세 보류 '종합 보세구역' 지정

익산시 제3 일반산업단지 외국인 투자지역이 18일부터 종합 보세구역으로 지정된다. 종합보세구역은 관세가 보류되는 지역으로 전국에서 7번째, 전북도에서 2번째로 지정됐다. 익산시는 4월 30일 관세청에 지정을 요청해 1일 결정 사실을 통보받았다. 지정지역은 56만5139㎡ 규모로, 삼기면 오희리 일원의 외국인부품 소재 전용단지(32만440㎡)와 바로 인접한 외국인 투자지역(24만4699㎡)까지

포함했다. 익산시는 이번 종합보세구역 지정으로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종합 보세구역내 기업은 원재료를 수입, 제품으로 제조해 수출하면 관세가 면제되고 국내의 다른 지역으로 반출할 경우도 원료 관세, 제품 관세 중에서 선택적 적용을 받을 수 있어 관세 부담을 줄이게 된다. 또 수입 물품 보관기간에 제한이 없어 기업의 가격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전북취재본부=류정영기자 ryu0418@

## 향가마을에 오토캠핑장 만든다

### 순창군 130억 투입 섬진강 관광자원 개발 박차

순창군이 천혜의 자원인 섬진강 관광자원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순창군은 섬진강 주변 부지 6만 1500㎡에 총 13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오는 2013년까지 오토캠핑장과 옥출산 산책로 등을 조성하는 섬진강 관광자원 개발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 가운데 전망대는 지난해 10월 완공됐으며, 산책로와 쉼터는 현재 6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오토 캠핑장에는 펜션 6동과 캐라반(캠핑이 가능하면서 엔진이 없는 트레일러 모양의 차) 6동, 야영 데크 44개가 들어서며, 생태연못·자전거 쉼터·조경시설 등이 조성될 계획이 있다. 자전거 쉼터에는 휴식시설과장미 아치 등을 조성해 도시민이 섬진강변을 찾아 편안히 쉴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을 제공하게 되며, 상업시설 부지는 민간에게 분양할 예정이다. 또 익산지방 국토관리청에서 이곳에 18억원을 들여 폐 교각~터널-대



순창군 풍산면 대가리 향가유원지

풍교까지의 구간에 순환 자전거도로를 개설할 예정이어서 자전거 도로와 향가 유원지를 연계한 관광 시너지 효과가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군은 자전거 도로 이용자에게 아를 담고 맑은 섬진강 주변의 다양한 볼거리와 관광자원을 제공함으로써 순창에 대한 이미지를 높이고 관광객

유치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순창군 관계자는 "주5일 근무제 이후 급증하는 캠핑족 유치를 위해 '섬진강 향가 오토캠핑장'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도시민이 휴양하면서 자연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이동희기자 dhlee@

## 군산시 원어민 영어교사 근대역사문화 투어

군산시는 최근 초·중·고등학교와 영어체험센터에서 근무하는 원어민 영어교사를 대상으로 근대역사문화 투어 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투어에는 원어민 영어 교사 26명과 TaLK 장학생 6명, 통역 등 40여 명이 참여, 근대 역사박물관을 비롯해

옛 군산세관 본관, 일본식 사찰 동국사, 신흥동 일본식 가옥 등을 둘러봤다. 군산시 관계자는 "이번 근대 문화 투어가 학교 영어 교육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져 군산 영어교육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박금석기자 nogusu@



## 붓으로 그린 둘레길

서남대학교와 지역 고등학생들이 자원봉사 활동으로 최근 '지리산 둘레길' 1코스 진입로인 남원시 주천면 장안리에서 '붓으로 둘레 길을 그리다'라는 주제의 벽화를 그리고 있다. /전북취재본부=백선기자 bs8787@

## 명인·명창 등용문 '전주대사슴놀이 전국대회'

8~11일 경기전·한옥마을 일대 전국 최고의 국악 명인·명창 등용문인 '전주대사슴놀이 전국대회'가 8~11일 경기전(慶基殿)과 한옥마을 일대에서 펼쳐진다. 본선 학생대회는 10일 오후 4시부터, 성인대회는 11일 정오부터 놀이는 판소리 명창·일반부, 농악, 민요, 가야, 무용, 가야금, 명고수, 대회기간 역대 대사슴 장원자가

시조, 궁도 등으로 나눠 진행된다. 이번 대회에는 성인대회 9개 부문에 172개팀 482명, 학생대회 8개 부문에 197팀 324명이 접수를 마쳤다. 본선 학생대회는 10일 오후 4시부터, 성인대회는 11일 정오부터 놀이는 판소리 명창·일반부, 농악, 민요, 가야, 무용, 가야금, 명고수, 대회기간 역대 대사슴 장원자가

참여하는 축하공연을 비롯해 국악의 창조적 계승을 위한 '창작국악경연', 시공간을 잇을 별 해는 밤으로 초대 '밤샘 콘서트' 등 기획 초정공연 등이 펼쳐진다. 또 한옥마을 일대에서는 막걸리 소리판, 거리광대 거리산조, 국악체험 등 국악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 단신

#### 전북경찰 112허위신고 처벌 강화

전북 경찰청은 허위·장난으로 112신고를 할 경우 형사처벌과 함께 민사 손해배상 소송도 할 방침이다. 전북경찰청은 "연간 300여 건이 넘는 허위·장난 신고로 경찰력 낭비와 범죄·긴급한 구조가 필요한 경우 신속히 대처를 못하

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처벌을 강화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전북 경찰청 관계자는 "악의적 신고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민사 손해배상 청구도 하는 등 강력히 대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 옥정호 외래어종 포획 전국 낚시대회 성료

최근 정읍시 산내면 황토리 옥정호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열린 '2012년 정읍시장에 옥정호 외래어종 포획 전국 낚시 대회'가 성료됐다. 2마리 합산 총 중량으로 순위 결정된 이번 대회에서 1등은 소재영(광주시)씨, 2등은 전운철

(전주시)씨, 3등은 박근영(전주시)씨가 차지했다. 가장 많은 고기를 포획한 다어상은 송덕(정읍시)씨, 가장 큰 고기를 잡은 대어상은 2.4kg 포획으로 1등을 차지한 소재영씨, 단체상은 8명이 출전한 '루사모'가 차지했다. /전북취재본부=박기섭기자 parkks@

#### 김제경찰 '학교폭력 이동 신고센터' 개소

김제경찰서(서장 이상주)는 최근 김제시립도서관 인근에서 '학교폭력 이동 신고센터'를 개소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나섰다. 신고센터는 등·하교 시간대를 중심으로 학교폭력 전담 경찰관을 배치해 ▲학교폭력 상담 접수 ▲아동·청소년들의 비행발견시

계도 및 보호자 인계 ▲외근근무 중 무다이어링 신고 전화·신고함 접수 등을 24시간 처리한다. 이상주 서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경찰활동을 전개해 신고센터 활성화를 확대운영 계획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북취재본부=홍윤성기자 hnews@

#### 남원 항공천문대서 금성 태양면 통과 관측행사

남원 항공우주천문대는 6일 금성이 태양을 가로질러 통과하는 관측행사를 갖는다. 태양-금성-지구가 정확히 일직선에 놓여 발생하는 금성 태양면 통과는 6일 오전 7시10분께부터 오후 1시50분까지 400분간 진

행된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앞으로 105.5년 뒤인 2117년 12월 11일이나 볼 수 있다. 관측시에는 반드시 태양 광경을 쬐어 주는 태양관측용 필터를 사용해야 한다. 문의(063-620-6900) /전북취재본부=백선기자 bs8787@